

# 몸짓과 사운드로 풀어낸 '꿈속의 사랑'

문화전당 예술극장 5·6일 '소리의 숲' 공연

지역예술인들과 공동 제작한 첫 작품

광주지역 연극배우·무용수 10명 참여

12~13일 음악극 '비는 오지 않지만...'

내년 2월까지 4개 작품 잇따라 무대



'Artway 숲'이 5~6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올리는 '소리의 숲' 연습 모습.

지난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틀리에. 낮게 깔리는 나레이션이 흐르고, 그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10여명의 배우들이 이리 저리 뒹굴며 다양한 몸짓을 더한다. 베테랑 연극 배우 신동호씨 등 낯익은 지역 예술인들의 모습도 보인다. 프로젝트 그룹 'Artway 숲'의 '소리의 숲' 연습 현장은 긴장감이 흘렀다.

'소리의 숲'은 오는 5일 오후 5시, 6일 3시 예술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예술극장이 광주 지역 예술인들과 제작한 첫 작품이다. 예술극장은 지역 문화계의 견을 받아들여 올 초 광주·전남·전북 출신이거나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원도우' 공모를 진행, 모두 4작품을 선정했다. 12월에 '소리의 숲' 등 2편이 공연되며 내년 1월과 2월에 '질문하는 인간'과 '광인'이 관객들을 만난다.

'소리의 숲'은 다양한 몸짓과 사운드가 어우러진 퍼포먼스 작품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 주어지는 '스무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로 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사랑'이다. 작품은 연출과 대본을 맡은 정소정씨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게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

서 소리, 즉 사운드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구성했다. 마지막 숲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새로운 꿈'을 불러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다. 살고 죽는 건 심장이 뛰고 안 뛰고의 문제다. 가장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

정씨는 죽음을 슬픔과 고통 자체만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 전통 장례식이 축제처럼 진행됐듯, 배우들은 때론 익살스런 몸짓으로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일본 배세토국제연극제 등에서 공연되는 '가을바', 연극 '뿔' 등의 희곡 작가를 서울에서 활동해온 정씨는 광주배우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는 신동호·김수원·김성관·임성재·박유정·이지은 등 지역 연극 배우들과 무용수들이 합류했다.

"연극이나 무용을 하던 분들이 평소 애용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에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참가 배우들은 새로운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며 1차 리딩 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다가왔다. 10명의 배우가 몸 쓰는 방식, 나이, 특성들이 모두 다르다. 최소한의 약속만 갖고 각자의 특성, 개성 등 각 배우들의 매력과 다름이 그대로 드러나게 작품을 구성했다."

이번 작품에서는 매트리스 등이 배우들과 어우러



'검은 밤'의 김유석씨

지며 무대를 구성하고, 물의 유속(流速)을 이용해 연주하는 '아쿠아포닉스 V2'가 무대에 함께 설치된다. 프로젝트 그룹 '검은 밤'의 음악극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겐 우산이 있지'는 12~13일 공연된다.

2013년 결성된 '검은 밤'은 지금까지 '전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작품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에르메스 갤러리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록밴드 '홀리건' 출신으로 영상 작업을 주로 했던 김유석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안정주·전소정, 그룹 '모로스'의 드러머 북남규씨가 출연하며 VJ 박승혁씨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등산'이다. 여기에 해태, 무등산 수박, 홍어, 도청 앞 이야기 등이 어우러진다. 작품 속에서 무등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티켓 가격 광주·전남 시민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601-46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황영성 '광복70주년 대한민국 미술축전' 운영위원장

### "태극기 소재 새로운 미술세계 기대 지역작가 중앙 소통 창구 역할 다할 것"

"그동안 한국에서는 태극기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 미술 소재로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태극기를 통한 새로운 미술 세계가 창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황영성(74) '광복70주년 대한민국 미술축전' 운영위원장은 "펼쳐지는 태극기를 보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태극기는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주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17~30일 '태극기와 나'를 주제로 '광복 70년, 대한민국 미술축전'을 개최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면·입체·미디어 작품을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 40여점을 전시한다. 대통령상에 선정되면 2000만원, 국무총리상은 150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33명의 작품을 전시하고 대형 태극기 작품도 설치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미술인으로서 이번 미술축전은 국가에서 진행한다는데 큰 의의를 뒀다.

그는 "지난 1970년대말 정부가 주최하던 한국미술대전의 주관기관이 민간단체로 넘어가며 지원도 안되고 미술인들의 관



심도 떨어지는 상황이다"며 "미술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9월 운영위원장에 위촉됐다. 짧은 준비기간, 정부가 주최하는 큰 행사에 대한 압박 때문에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한다. 특히, 지역 미술인으로서 중앙 정부의 행사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나도 말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가 무슨 운영위원장을 만나며 거절을 했었죠. 그러자 다른 운영위원들이 요새 지역, 중앙이 어디있냐며 추대를 하더군요. 이왕 맡았으니 열심히 해서 지역 작가들이 중앙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지역 작가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광주는 비엔날레, 문화전당 등 어디에나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문화자원들이 많다"며 "후배 작가들이 지역 출신이라는 소외감,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이 작품에만 매진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홍희기자 kimhy@

## 국립현대미술관 첫 외국인 관장

###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장 임명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Bartomeu Mari Ribas·49)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회장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장 후보 3인에 대한 심사 결과 새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마리 회장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수장으로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리 회장은 네덜란드비데 데 비트 예술 감독,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 재직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도 관람객 수와 입장 수익을 늘리고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또 영국 테이트미술관 총관장 등 해외 미술계 인사들이 그를 관



장 적임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신임 관장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전남 통영사를 배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 또 한국 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학예실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미술계 일각에선 마리 전 관장의 전직을 문제삼아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무엇일까

### 전남대 BK21, 7일 정근식 교수 초청 강연

광주의 도시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로컬리티 정체성을 어떻게 의미 있는 문화 가치로 창출할 수 있을까?

최근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가 지난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의 문화적 산물이 어떤 방향으로 결집되어야 하는지를 과제로 던져주었다. 향후 문화수도 광주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 방향과 연계된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 BK21 지역기반사업단(단장 신해진·전남대 국문과 교수)은 오는 7일 인문대 교수회의실(인문대 2호관 408호)에서 '제12회 전문가 초청 강연



정근식 교수

회'를 개최한다. 초청 강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사진) 교수다.

이날 '도시 정체성에 기반을 둔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를 주제로 정 교수는 문화적 자산이 어떻게 의미 있는 문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정 교수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

## 12월 광주시민인문학 27기 강좌

### 31일까지 전남대 정문앞 카페 노블

한해의 끝자락 12월을 맞아 광주시민인문학이 27기 강좌를 연다. 오는 31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정규강좌와 SEMI강좌로 나눠 진행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 심리학, 철학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사유 트레이닝' 시간으로 최창근 교수가 '혁명의 시대와 자유'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은 '심리학특강' 시간으로 안정선 예술심리상담사가 '이 시대, 콤플렉스를 진단하다'를 주제로 콤플렉스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한다. 수요일은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

간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이 론 스타디를 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광시인 콜로키움Ⅲ-내 안의 인문학' '클래식 음악과 친화하기 V-크리스마스 음악, Wine 신년음악회'를 주제로 강의와 감상이 이어진다.

SEMI강좌(토·일 오후 5시)는 '오타쿠 위키어의 무비토크'를 주제로 다시 한번' 등이 진행된다.

수강료 학생 1만원, 조합원 2만원, 일반회원 3만원.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파죽지성 빛깔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www.geumsoojang.com |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단열시트, 방수시트, 방수막, 시공방법, 시공비용, 시공기간

홈페이지: 방수시트(아트패션시트, 커블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